

◆ 북미

- 캐나다, AIG 자산의 또 다른 매수자
- 뉴욕주, 내년 CDS 시장 규제 계획 밝혀
- ‘서브프라임 파고, 보험업계에 2~3년 후 본격 영향 줄 것’

◆ 유럽

- 英 FSA, 보험사들에게 솔벤시 II 대응에 노력할 것을 강조
- 12월에 출생한 英 운전자, 자동차 보험금 청구 가장 많아

◆ 일본

- AIG, 일본의 2개 생명보험 자회사 매각 검토
- 日 보험업계, 상품 신고제 요구 목소리 높아져

◆ 중국

- 멜라민분유 사태 이후 배상물책임보험 관심 집중
- 中 보험회사 수익구조, 자산운용에서 전통 수익원으로 환원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복미 】

□ 캐나다, AIG 자산의 또 다른 매수자

-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Fairfax Financial Holdings는 시장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AIG의 캐나다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유럽의 AIG 해외지점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수자금측면으로 보면 Fairfax는 5년 전부터 최근의 신용위기에 대비하여 AIG 등에 5억7,450만 달러의 신용디폴트스왑(CDS)을 판매하여, 16억5천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시켰고, 4억 4,680만 달러가 아직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Fairfax CEO인 프렘 왓사가 ‘신용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에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한편 9월 22일 당일 Fairfax 주식이 8.5%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캐나다계 보험사인 Manulife Financial Corp과 Sunlife Financial Inc.도 AIG자산 인수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토론토에서 은행장들과 화합을 가진 Manulife의 차기 CEO인 돈 골르완은 미국내 및 아시아내 AIG 자산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AIG자산의 인수의 손익평가를 보면 아주 값싼 가격에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춘 최고의 보험사를 안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AIG의 대출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임.
- 캐나다계 보험사와 은행들은 현재 AIG의 자산건전성과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Bloombergnews, 9/23)

□ 뉴욕주, 내년 CDS 시장 규제 계획 밝혀

○ 미국 뉴욕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들의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디폴트스왑)를 규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디폴트스왑): 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보증받는 파생상품의 하나로 대출채권에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그 손해액을 보증받는 일종의 금융보험임.

-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장치 없이 62조원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CDS가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 월가(街)의 대체적인 인식임.

- 뉴욕주 보험국(NYSID)은 일부 CDS를 보험처럼 다루어 규제를 명문화한 새로운 주(州)립 규제법을 발표한 가운데 데이비드 패터슨(David Paterson)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도 CDS 시장 규제책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함.

- 이 새로운 규제법은 금융시장에 충분한 자본유통 확보와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와 에릭 디날로(Eric Dinallo) 뉴욕주 보험국장은 이번 금융위기가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비보험회사들이 CDS를 무리하게 판매하여 생긴 결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역설함.

-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연방정부의 시장안정화를 조치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월스트리트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관리감독 부재가 만든 측면이 크므로 CDS 시장처럼 기존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책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에릭 디날로 뉴욕주 보험국장 역시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금융시장, 특히 CDS에 대한 규제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시장규제의 필요성을 말함.

(Insurance Times, 9/23)

□ ‘서브프라임 파고, 보험업계에 2~3년 후 본격 영향 줄 것’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가 2~3년 후에 보험업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일반보험 계리사들을 위한 모임(GIRO)에서 알렉스 마커슨(Alex Marcuson) 서브프라임 분과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보험업계가 적지 않은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영향으로 인한 청구비용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시기는 바로 2~3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그는 경기침체가 있으면 반드시 보험청구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지금처럼 침체가 심화될 수록 그만큼 보험금 청구 규모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규모도 작고 실제 파악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보험 정보 특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중시킴.

- 현재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계리사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자체적인 부채상황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산 익스포져(exposure)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함.
 - 특히, 현재 보험산업이 은행권 감독모델을 지나치게 추종하려는 현상을 경계해야 하며, 알렌 그린스판(Alan Greenspan)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200년에 한 번 생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 솔벤시 II(Solvency II)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됨.
 - 솔벤시 II 시행을 앞두고 필요할 경우 자체적인 내부자본모델(internal capital models)을 재설정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Insurance Daily, 9/26)

【 유럽 】

□ 英 FSA, 보험사들에게 솔벤시 II 대응에 노력할 것을 강조

-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자국 내 보험사들은 EU 자본 제도로 새롭게 시행될 솔벤시 II(Solvency II)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보험회사 이사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자리에서 금융감독청은 2012년 솔벤시 II가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이 부여된 의무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솔벤시 II가 시행되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신사업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함.
 - 금융감독청은 솔벤시 II 제도 아래서 이행해야 할 이사회 본연의 책임과 범위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솔벤시 II가 시행되면 위험관리와 재무 및 보험계리 기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함.
- 영국은 2004년부터 솔벤시 II와 유사한 ICAS(Individual Capital Adequacy Standard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솔벤시 II가 더 진일보한 제도라는 것이 금융감독청의 인식임.
 - ICAS 하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내부경제모형이나 공개정보에 대한 감독승인이 의무화되지 않은데 반해 솔벤시 II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표준모형이나 자신들만의 발전모형을 통해 소요자본(capital requirements)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영국 기업들이 솔벤시 II 시행을 계기로 중요한 변화를 맞을 것이며, 바로 지금이 그에 대한 준비를 할 때이라고 금융감독청은 보고 있음.

(Business Insurance, 9/25)

□ 12월에 출생한 영국 운전자, 자동차 보험금 청구 가장 많아

-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청구와 운전자 생일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온라인 전문 자동차 보험회사인 엘리펀트(elephant.co.uk)가 자사 보험청구건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함.
 - 자동차 보험 청구건들을 분석한 결과 12월이 생일인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고청구를 했으며 이에 반해 매월 1일에 태어난 운전자들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이들의 생일을 분석하여 이른바 가장 위험한 생일(the biggest danger birthdays)로 조사된 날은 9월 16일, 1월 29일, 12월 24일인 순이었으며, 반면에 6월 31일에 태어난 운전자들의 보험금 청구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운이 좋은(the luckiest) 생일날로 조사됨.
 - 또한 연중 가장 안전한 생일 상위 10개가 2·3·6·8·9월에 있다는 분석결과도 발표함.
-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엘리펀트 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총평함.
 - 향후 생일과 교통사고 혹은 면허위반 벌점부과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거나 가장 위험한 생일로 조사된 1월 29일 및 12월 24일이 여타 생일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매월 1일이 가장 운 좋은 날이 되었는지를 연구하면 여러모로 흥미로울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설사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이른바 불운한 날이 생일인 운전자들을 보험회사들이 인수거부를 하는 등의 심사자료 중 하나로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함.

(money.co.uk & Insurance Daily, 9/24)

【 일본 】

□ AIG, 일본의 2개 생명보험 자회사 매각 검토

- AIG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자회사인 AIG에디슨생명과 AIG스타생명보험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 주 중에 매각 대상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 매각 대상인 AIG에디슨과 AIG스타는 2009년 1월 합병 계획이 있었으나 이와 같이 매각될 경우 일괄 매각될 전망이며 매각액수는 수천억엔 규모로 보여짐.
 - 이들 회사는 재무적으로는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
- AIG에디슨은 1999년에 파산한 도호(東邦)생명보험을 GE에디슨생명이 승계하였으나, 2003년에 AIG가 인수하였고, AIG스타는 2000년에 파산한 치요다(千代田)생명을 AIG가 인수함.
- AIG에디슨의 2007년도의 수입보험료는 4,073억 엔으로 일본의 생명보험 업계 22위이며, AIG스타는 수입보험료가 2,663억 엔으로 업계 23위임.
 - 보유계약은 AIG에디슨이 228만건이며, AIG스타가 165만건임.
- * 2008년 4월 10일 기준으로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는 일본국내사42개, 외국사 4개, 지주회사 4개로 총 50개로 파악됨.
- 한편, 일본내 AIG그룹의 주력 생명보험인 알리코재팬은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에디슨과 스타는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매각이 용이하지만, 알리코재팬은 AIG의 일본 지점형식으로 영업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마이니치신문, 9/27)

□ 日 보험업계, 상품 신고제 요구 목소리 높아져

- 일본에서 상품판매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약과 보험’뿐이지만, 보험은 ‘약’과는 다른 상품으로서 특성상 비슷한 은행이나 증권과 같이 신고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험업계에서 증가함.
 - 증권회사의 투자신탁도 예전에는 인가제였지만 신고제가 되었음.
- 일본 보험업법 제5조에는 보험상품 면허 신청이 있을 때에 내각총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인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제123조 1항과 2항에서 특약 등을 포함한 사업방법서에는 일부 법인형 상품 등의 신고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 신고상품일 경우에도 보험사가 상품안으로 제출한 것을 사전 심사한 다음 신고를 하게 되므로 사실상 심사에 가까운 것이 됨.
- 2007년 4월까지의 각사가 영업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충분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던 보험사는 과거의 이익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하였던 것에 반해, 그렇지 못한 신생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이 많았음.
 - 또한 이로 인해 신상품 신청 후 상품인가가 1년 이상 지체되는 사례도 있어 금융심의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였음.
- 이 때문에 2007년 4월 이후에는 제도가 개정되어 보험요율산출단체의 참조순보험요율에 각사의 사업규모나 사업비율을 감안한 부하율을 곱해 영업보험료를 산출함.
 - 제도 개정 후 보험료 산출이 유연성 있게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인가승인까지의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상존함.
- 일본 보험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만일 신고제가 인정되면 보험상품이 증가하여 보험업계의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상품도 신고제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언급함. (일본 보험매일신문, 9/25)

【 중국 】

□ 멜라민분유 사태 이후 배상물책임보험 관심 집중

- 중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로 인해 4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빼앗기고, 6,000여 명이 신장결석으로 고통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배상물책임보험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유럽이나 미주국가에서는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생산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져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김.
- 기업은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식품업계의 보험가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에서는 서방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를 막론하고 배상물책임보험이나 식품오염에 대한 위험의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
- 이 때문에 위험물을 제외한 생산품이 제품책임보험에 가입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더군다나 유제품 생산업체 중에서는 멥뉴(蒙牛)가 수년 전 중국인민보험공사(中國人保)에 1년짜리 제품책임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지만, 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배상물책임보험 가입이 전무한 상황임.

(중국증권망, 9/24)

□ 中 보험회사 수익구조, 자산운용에서 전통 수익원으로 환원

- 작년 주식투자 수익으로 배를 불렀던 보험회사가 이제 더 이상 옛 영화를 누리기 어렵게 됨.
 -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은 649억 위안으로 연 평균 2.4%의 수익율을 거두는데 그치면서 작년의 1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1년 사이 주식시장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예는 앞으로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대로 주식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옴.
 - 소비자의 적립형 일시납 보험 가입 증가와 자연재해 빈발로 인한 보험금 지급요인 증가 역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전력하도록 함.
- 투자열기가 냉각되면서 중국 보험업계도 자산운용을 강화한 수익구조 변화에 대해 자성하기 시작함.
 - 중국생명(中國人壽)자산관리공사 부총재 왕전휘(王軍輝)는 “금년 들어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운용 수익에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생명은 적시에 투자전략을 수정하여 투자자산 비율을 줄이고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했다.” 고 말함.
 - 연초 이후 수입보험료 증가로 운용가능 자산이 불어나면서 보험회사마다 최적 수익율의 자산운용처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업계 차원에서 보감위에 사회기초시설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로도 눈을 돌리고 있음.
 -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투자수익에 의존하던 시대가 지나고 사차익, 비차익, 이차익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보험회사 본연의 수익구조로 되돌아 갈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임.

* 사차익 : 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었던 사망률보다 사망률이 더 낮아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게 되어 발생하는 이익

비차익 : 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었던 각종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사용하여 남는 이익

이차익 : 예정이율보다 자산운용수익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

(21세기경제보도, 9/26)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구분		07년 말	08.9.19(금)	08.9.26(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80	6.01	0.21
	美 10년국채	4.03	3.55	3.87	0.32
	英 10년국채	4.51	4.41	4.78	0.37
	日 10년국채	1.51	1.48	1.12	-0.36
주가	韓 KOSPI	1,897.13	1,455.78	1,476.33	1.4%
	韓 KOSDAQ	704.23	446.46	448.34	0.4%
	美 DJIA	13,264.82	11,388.44	11,143.13	-2.2%
	美 Nasdaq	2,652.28	2,273.90	2183.34	-4.0%
	英 FTSE100	6,456.90	5,311.30	5088.47	-4.2%
	獨 DAX30	8,067.32	6,143.42	6063.50	-1.3%
	佛 CAC40	5,614.08	4,324.87	4163.38	-3.7%
	日 Nikkei225	15,307.78	11,920.86	11,893.16	-0.2%
	中 상해종합	5,261.56	2,075.09	2,293.78	10.5%
	대만 가권	8,506.28	5,970.38	5,929.63	-0.7%
	홍콩 항셱	27,812.65	19,327.73	18,682.09	-3.3%
환율	원/달러	938.20	1,139.00	1,160.50	21.50
	원/100엔	833.33	1,087.49	1,091.13	3.64
	엔/달러	112.58	107.06	105.89	-1.17
	달러/유로	1.4722	1.4385	1.4618	0.02
	위안/달러	7.3041	6.8345	6.8431	0.01